

사회

문화재 536점 어디로 갔나

광주·전남 관리 허술에 도난·절도 심각

대부분 비지정문화재...해의 밀반출 가능성도

지난 7월28일 영암군 미암면 선항리 박모(59)씨의 밭에 있던 청동기시대 고인돌 2기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당황한 박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며칠 후 고인돌은 제자리에 돌아왔다. 박주인 박씨의 동생이 이 고인돌이 중요한 유적인지 모르고 조경석으로 쓸 생각으로 자신의 집으로 옮겼다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급하게 제자리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문화재에 대한 무지와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지난달 28일 도굴범에 의해 임진왜란 유물과 국보급 청자의 실체가 알려지면서(본보 11월 29일자 1면) 문화재 보호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의 문화재 500여점이 도난당한 채 잊혀져 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18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6년부터 이날 현재까지 26년간 광주·전남 지방의 도난 문화재는 모두 536점으로 파악됐다. 특히 보물 제1043호인 '송광사 16조사진영' 등 지정문화재는 29점인데 반해 비지정문화재가 507점으로 도난 건수가 2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지정문화재는 대부분 사찰이나 야외 등 외부에 노출돼 있고, 보안이 허술한 경우가 많아 절도 등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문화재에 대해 잘 아는 전문 절도범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상당수가 절도범에 의해 도난된 뒤 골동품 업자를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거나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장기간 숨겨두고 있는 것

로 파악하고 있다. 또 이중 고가의 문화재는 해외 등으로 밀반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국에서 도난된 문화재는 모두 3794점으로 이 가운데 3641점이 비지정문화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지정문화재는 법령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매장문화재(사리, 복장 유물), 일반동산문화재, 기타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말하며, 개인이나 사람이 소유·관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문화재에방관리센터 진관주 기획실장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거나 주변에 있는 문화재들이 후대에 큰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관계 기관도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박물관을 만들어 주민이 관심을 쏟게 하는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형기자 halo@kwangju.co.kr

지병문 전남대 총장 임용안 국무회의 통과



제19대 전남대 총장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던 지병문(사신·59·정치외교학과)교수의 총장 임용안이 18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 교수는 지난 10월 치른 총장선거 재선거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국무회의 일정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용이 2개월간 미뤄졌다. 논란이 됐던 지 교수의 논문 의혹

은 지난달 말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검증에서 "중대한 윤리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학내 구성원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며, 심의 재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지 교수의 총장 임용 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정부로부터 총장 임용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 총장임기는 임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4년이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올 광주·전남 명퇴교원 358명

광주는 해마다 증가

광주지역에서 명예퇴직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은 모두 358명(광주 128명·전남 230명)이다. 광주의 경우 초등 36명, 중등 92명이며 전남은 초등 99명, 중등 131명으로 중등교사의 명예퇴직 숫자가 많았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지역의 명예퇴직 교사 수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80명에서 2010년 92명, 2011년 114명, 올해는 128명까지 늘어났으며 내년 신청자도 벌써 85명에 달했다. 전남지역 명예퇴직 교사 수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09년 280명, 2010년 216명, 2011년 277명, 2012년 230명이었으며, 내년 신청자는 181명으로 명퇴 교원 숫자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순천·여수·광양 담당 경찰 광역수사팀 신설

순천, 여수, 광양을 담당하는 경찰 광역수사팀이 잇따라 신설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순천에서 동부 지역 광역과학수사팀 현판식을 가졌다. 동부 과학수사대 동부지부, 지난 4월에는 공직자·토착비리 등 경제사범을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 동부지부를 개설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사자 검시 등 과학수사 업무를 맡는다. 경찰은 3개월간 광역과학수사 체제를 시범적으로 운용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광역수사대 동부지부, 지난 4월에는 공직자·토착비리 등 경제사범을 수사하는 지능범죄수사대 동부지부를 개설한 바 있다. /유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광주김치 파이팅

18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김치' 홍보를 위해 러시아 등 27개국 130개 도시(5만200km)를 400일간 누빈 김치버스 귀국 환영식이 열렸다. 강운태(오른쪽에서 세번째) 광주시장과 김치버스 팀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eonnam region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data for various cities like Gwangju, Yeosu, and Gwangyang.

제주서 고려말 추정 유골 30여구 발견

제주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동묘역에서 거의 온전한 상태의 유골 30여구가 발견됐다. 이 시기의 매장 분묘에서 다수의 유골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제주고고학연구소(소장 강창화)는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의 매장 분묘 유적지 200m에 대해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발굴조사를 벌여 토광묘 20기, 석곽묘 1기 등 분묘 21기에서 거의 온전한 형태의 유골 21기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두께 40~50cm 모래층 아래에서 발굴된 유골의 연령대는 어른이 3~4구, 나머지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로 추정됐다. 이들 유해와 함께 고려시대 말기 유물인 철자대검, 분청사기, 청동제 비너, 청동 손가락, 몽골 병 등 14~16세기 유물이 출토돼 이 시기에 묘역이 조성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Hansaton (www.kjhr.com) celebrating 30 years with a 30% discount sale.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nd a list of countries served.

Advertisement for Joy Tour (조이투어)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for Japan, China, and domestic travel, including prices and departure dates.

Advertisement for kbc Jeonnam branch featuring Japanese cultural experiences, including a 4-day Japan tour and a 4-day Christmas trip to Osaka.

Advertisement for travel services including packages for Jeju Island, domestic travel, and international flights, with prices and departure dates.

Small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providing additional information and disclaimers for the advertisements.